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와 개선 방안

김미선*

|| 차례 ||

- I. 머리말
- II.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
- III.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개선 방안
- IV. 맺음말

【국문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교수자들은 효율적인 수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를 교수자들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2020학년도 1학기에 84명의 수강 인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수업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영상을 통한 강의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문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초적인 한문 지식 전달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고, 동영상 강의를 반복하여 들으며 복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활동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을 하였다. 매주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간단한 활동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다음 주차 동영상 강의 초반부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다. 셋째, 한자 쓰기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대면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트 정리, 쓰기 교재 등을 평가에 활용하여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수자의 측면에서는 소통을 위한 창구를 확대하고, 학교의 측면에서는 분반별 수강 인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안전한 대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50명 이하로 한 분반 수강 인원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비대면 수업, 교양 한문, 수업 사례, 동영상 강의, 상호 작용, 한자 쓰기, 개선 방안

1. 머리말

2020학년도 교육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비대면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방식이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교수자들은 효율적인 수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운영하는 교양 교과목 중 한문 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큰 과목이라 할 수 있다.¹⁾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선행 지식 차이가 있고, 한자를 익히고 한문을 독해하는 수업 내용 자체가 교양 과목 중에서는 어려운 편이라, 학생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수업 진행은 어려움이 크다. 또한 대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시, 한문 지식 습득 여부를 공

1) 교양 한문 과목은 학교에 따라 한문학과, 기초교육원 등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필자가 수업한 대학교에서는 국어국문학과에서 운영하였으며,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소속 교수자가 수업을 하였다. 공통 교재 편찬에는 국어국문학과 교수 2명, 중어중문학과 교수 2명, 철학과 교수 1명이 참여하였다.

정하고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비대면 한문 수업 관련하여서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에서 2020년 8월에 ‘한자, 한문교육 원격수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²⁾, 이중 비대면 한문 수업 관련 논문이 학술지에도 게재되었다. 공민정은 중학교 한문 수업, 이국진은 대학교 한시 전공 수업, 백진우는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한자어 수업에서의 비대면 수업 운영 사례와 방안을 제시하였다.³⁾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대학교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를 교수자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교양 한문 수업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학술대회는 학회 누리집에 자료집을 탑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누구든 자료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2020. 8. 5, <http://www.studyhanja.or.kr/notice/view.php?idx=657> (검색일 : 2021. 1. 7))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을 수록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재, 「代表 字義를 字音定義한 漢字 字義의 교육적 대안 모색-원격수업을 중심으로」; 허연희, 「비대면 원격수업 관련 교육정책과 한문교육 방안」; 허철, 「한문과 원격수업 연구, 개발과 운영의 지향」; 장재익, 「원격수업에서의 매체 활용 방안(강의식 수업 중심)」; 공민정, 「원격수업을 통한 중학교 한문과 활동수업 연구(중학생 대상)」; 이은민, 「원격수업에서의 한문과 융합교육 방안 연구」; 양원석, 「한문 원전 온라인 원격 수업의 설계·운영 및 평가 방안-經書 관련 수업을 중심으로」; 이국진, 「대학교 한시 전공 온라인 원격 수업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2020년 1학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박동욱, 「인문교양수업에서 원격수업의 설계와 운영 방안」; 김용재, 「한자어 및 어휘 수업에서 원격수업 설계와 운영 방안」; 백진우, 「유학생 대상 한국한자어 교육에서 원격수업의 설계와 운영 방안」.

3) 공민정, 「원격수업을 통한 중학교 한문과 학생 중심 수업 연구」, 『한자 한문교육』 제4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pp.31-50; 백진우, 「학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방안-원격 수업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 한문교육』 제4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pp.73-90; 이국진, 「대학교 한시 전공 온라인 원격수업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2020년 1학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 한문교육』 제4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pp.51-72.

II.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

필자는 2020학년도 1학기에 교양 한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한 학교에서는 ‘한문’이라는 과목명 아래 국어국문학과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등은 한문이 교양필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한문 분반은 학과별로 개설되지 않고 전체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다.⁴⁾

수강 인원은 강의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당시에는 비교적 큰 강의실에 배정되어 전체 84명이었으며, 한국인은 83명, 외국인인 중국인 1명이었다. 수강 학생 중에 미국인,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있을 경우 한자 자체를 생소해해서 부가 설명을 늘리고 수업 속도를 느리게 하기도 한다. 해당 학기에는 외국인이 중국인이라 유학생에 대한 배려는 덜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과제물 대체로 수업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학기에는 급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 과제와 피드백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강신청 정정 기간인 1주차, 중간고사 기간인 8주차, 주요 과제를 제출하는 14주차,

4) 2020학년도 1학기 필자가 수업한 한문 분반 수강 학생들의 학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부,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농업경제학과, 독어독문학전공, 문헌정보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사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전공, 생활복지학과, 서양화전공, 식품학전공, 신문방송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역사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유아특수교육전공, 융합섬유공학전공, 이론전공, 일어일문학과, 임산공학전공, 자율전공학부, 전기공학과, 조경학과, 중국학전공, 지리교육과, 철학과, 통계학과, 특수교육학부, 환경에너지공학과, 회계학전공

기말고사 기간인 15주차에는 동영상 강의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주차별 수업 내용 및 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차별 수업 내용 및 방법

주차	수업 내용	수업 방법
1	강의 내용 및 방향 한자, 한문의 주요 개념(1)	강의 자료, 활동 자료
2	한자, 한문의 주요 개념(2) 일상생활에서의 한문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3	I. 한자, 한문의 첫걸음 -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허사의 이해(1)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4	I. 한자, 한문의 첫걸음 - 허사의 이해(2)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5	I. 한자, 한문의 첫걸음 - 문장의 이해 II. 명구(名句)로 배우는 한문 - 학(學)과 관련된 명구 -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관련된 명구(1)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6	II. 명구(名句)로 배우는 한문 -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관련된 명구(2) III. 고사(故事)로 배우는 한문 - <각주구검>, <관포지교>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7	III. 고사(故事)로 배우는 한문 - <칭출어람>, <호가호위>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8	중간고사	중간고사 대체 과제 (노트 정리)
9	IV. 한시(漢詩)로 배우는 한문 - <추야우중>, <한산도>, <채련>, <절명시3>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10	IV. 한시(漢詩)로 배우는 한문 - <사시>, <우성> V. 문장(文章)으로 배우는 한문 - 설화·전기문 : <단군>(1)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11	V. 문장(文章)으로 배우는 한문 - 설화·전기문 : <단군>(2)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12	V. 문장(文章)으로 배우는 한문 - 서간·서발문 : <기제야> - 일기문 : <송덕봉>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13	V. 문장(文章)으로 배우는 한문 - 논설문 : <잡설>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14	사자성어 200선 쓰기	과제(사자성어 쓰기)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대체 과제 (노트 정리)

수업 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만든 교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⁵⁾, 한문의 기초를 익힌 다음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대면 수업 때도 같은 내용을 수업하였으며, 비대면 수업이라 하여 수업 목표 및 수업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같은 내용을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하였다.

수업 방법은 동영상 강의와 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매주 월요일에 강의 자료, 동영상 강의, 활동 자료 양식을 e-클래스에 탑재하면,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활동 자료를 작성하여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동영상 강의 진도율이 e-클래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느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강의 녹화 전에 활동 자료를 확인하고 동영상 첫 부분에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다.

애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면 시험을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여 중간고사 때는

5) 대한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大學漢文』,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대한한문교재 편찬위원회 편, 『사자성어 200선 쓰기 교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였고, 기말고사 때는 수강인원이 84명이나 되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대면 시험을 치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 모두 노트 정리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e-클래스에 탑재하게 하였으며, 감점 요인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제 수업 사례를 수업 방식, 상호 작용 방식, 평가 방식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1. 동영상 강의 중심의 수업

교양 과목은 일반적으로 전공 과목보다 전달해야 할 지식의 양이 적고, 영화 감상, 토론, 조별 활동, 발표 등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필자의 경우 교양 글쓰기 과목을 수업할 때에는 강의식 수업, 학생의 글쓰기와 교수자 개별 피드백, 글쓰기에 대한 동료 피드백, 조별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여 수업을 하였다. 비대면 수업 때는 동영상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를 혼합하여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 때 조별 토론 등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양 한문의 경우 다양한 활동보다는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한문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초적인 한자도 모르는 학생, 한문을 싫어하나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수강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문 지식 전달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었다.⁶⁾ 또 한문은 교양 과목 중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아 시험

6) 이와 관련하여 대학 교양 한문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희연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양 성격으로 한문을 가르칠 경우 단순한 한자 어휘나 짧은 문장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교양과목과 달리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스스로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2020학년도 1학기 한문 수업의 1~2주차에는 한자의 3요소(형, 음, 의), 한자의 짜임(육서), 한자의 획순, 한자의 부수 등 한자,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였다.⁷⁾ 이후 3주차부터는 교재의 순서에 따라 직접 한문을 번역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PDF 형식의 강의 자료와 그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e-클래스에 탑재하는 방식이었으며, 강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표 2〉 강의 자료 예시

구분	내용
제목	채련 採蓮 연을 따다
원문	秋淨長湖碧玉流 荷花深處繫蘭舟 逢郎隔水投蓮子 或被人知半日羞 ⁸⁾
번역	맑은 가을날 긴 호수에 푸른 강물이 흐르고 연꽃 깊은 곳에 목단배가 매어져 있네 님 만나 물을 사이에 두고 연밥 던지며 놀다가 혹 남의 눈에 띄었을까 온 종일 부끄러워 했네 ⁹⁾
한자	淨 : 맑을 정 長 : 길 장, 자랄 장, 어른 장, 장점 장 湖 : 호수 호 碧 : 푸를 벽 玉 : 구슬 옥 流 : 흐를 류 荷 : 연 하 花 : 꽃 화 深 : 깊을 심 處 : 곳 처 繫 : 맺 계 蘭 : 난초 란, 목련 란 舟 : 배 주

한자 어휘나 사자성어와 같은 한문의 기초적 성격을 학습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전희연, 『大學 敎養漢文 敎育의 變遷과 敎授·學習方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3)

7) 1주차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강 학생 변동이 없는 2주차에 1~2주차 내용을 합하여 강의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逢 : 만날 봉 郎 : 사내 량 隔 : 사이 격 投 : 던질 투 蓮 : 연 련 子 : 아들 자 或 : 혹 혹 被 : 입을 피, 이불 피 人 : 사람 인 半 : 반 반, 한창 반 日 : 날 일, 해 일 羞 : 부끄러울 수, 드릴 수
비고	* 蘭舟 : 목단배. 목련(木蓮)으로 만든 아름다운 배. * 蓮子 : 연밥(연꽃의 열매)

위의 내용 예시는 9주차에 수업한 4편의 한시 중 <채련>에 대한 것이다. 번역 수업 때는 모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강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교재에는 제목, 저자명, 한시 원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재의 말미에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교재의 내용을 강의 자료에도 보기 쉽게 넣었으며, 한자 음과 뜻 및 비고는 필자가 추가하였다.

원문은 학생들이 보기 쉽게 24포인트로 글씨 크기를 키웠으며, 줄 사이에 여백을 주어 동영상 수업을 들으며 메모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해 주었으며, 해당 주차에 이미 나온 한자는 생략하였다. 첫 한자인 ‘추(秋)’의 경우 해당 주차 첫 번째 한시인 <추야우중>에서 음과 뜻을 제시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기초적인 한자도 모두 음과 뜻을 제시하였으며, 이전 주차에 나왔던 한자도 다시 음과 뜻을 제시하여, 해당 주차 강의 자료만 보고 한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미리 한자를 찾아야 할 수고가 없고, 기초적인 한자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한문 교육의 목표에 대해 김영우는 ‘우리말 사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말에 포함된 한자어와 한자를 올바르게 익히게 한다는 기초 교육으로서의 측면’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인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양 교육의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¹⁰⁾ 그리고 교양으로서의 대학 한문

8) 대한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大學漢文』,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p.76.

9) 위의 책, p.182.

교육의 목표는 ‘한문 고전을 통한 교양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¹¹⁾ 필자는 한자를 익히는 기초 교육, 한문 고전을 읽으며 인성과 지식을 쌓아가는 교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

수업을 할 때에는 먼저 작품과 저자,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자를 설명하였다. 위에 예로 든 한시의 경우 허난설헌의 작품이므로, 여성 시인으로 조선시대 불행한 삶을 살았던 허난설헌에 대해 설명하고 동생인 허균과의 관계, 죽음 이후 작품이 전해지게 된 상황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자를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알려주고,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예컨대, ‘정(淨)’의 경우 ‘쟁(爭)’, ‘정(靜)’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한시 작품에 대한 배경과 한자를 익힌 후 번역에 들어가며, 번역을 할 때에는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가며 천천히 전체를 번역해 주었다. 번역을 한 이후에 작가, 사회적 배경과 연결하여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교수가 음을 읽고 학생들이 따라 읽는 것으로 해당 부분 강의는 마무리가 되게 하였다.

한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처음 한문 교재를 접했을 때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 교수자가 강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주치의 활동 자료 중 한 항목으로 본인의 한문 공부 경험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한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무지하다는 학생이 다음과 같이 해당 분반 수업 신청 이유를 언급하였다.

10) 김영우,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방향-仁濟大學校 教養 漢文을 中心으로」, 『한자 한문교육』 제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p.320.

11) 위의 논문, p.321.

저는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조금 했지만 7급이라는 초라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자 공부는 거의 하지 못해 기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문 공부에는 흥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 한문에 무지하여 걱정하던 와중, 교수님이 올리신 한문 강의 계획서에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느낄 한문의 두려움을 고려하신다는 부분에서 저한테 딱 필요하고 맞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학생 노○○)

교수자가 ‘한문의 두려움’을 고려한다는 것에 학생은 공감하였으며, 실제 수업은 기초 한자부터 번역까지 강의 중심으로 진행하여 동영상 강의만 집중하여 들으면 따라올 수 있게 하였다. 한 학기의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수업평가에서 이와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2020학년도 1학기 필자의 한문 분반 수업평가 중 학생의견 중 일부이다.

한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전 한자를 배운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교수님께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학생A)

한문에 흥미도 없고 한문이 싫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난 뒤에는 한문에 흥미가 조금 생겼고, 한문을 쉽게쉽게 가르쳐줘서 감사했습니다.(학생B)

한문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수업 방식이 제게는 맞았고, 감사했습니다.(학생C)

필수 과목이라 어렵게만 다가올 뻔 했던 한문을 자세한 설명과 재미있는 수업으로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학생D)

어떻게든 학생들이 한문을 포기하지 않게끔 노력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학생E)

필자는 화면 녹화 제작 도구인 ‘에버렉(EverLec)’을 사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였으며, 화면의 하단에 교수자의 모습이 보이게 녹화하였다. 화면 녹화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교수자에 따라 화면에 목소리만을 녹음하기도 한다.¹²⁾ 필자의 교양 한문 수업의 경우 강의 자료를 보며 한자를 설명하고 번역을 하는 방식이므로, 교수자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자칫 수업이 너무 단조로울 수 있다. 또한 직접 만나지 못해도 교수자의 얼굴을 계속 보다보면 친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문과 같이 공부할 것이 많은 교양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모습까지 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보경은 비대면 교양 영어 수업의 학습자 설문을 분석하여 긍정적 요인으로 ‘반복재생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첫째로 들었다.¹³⁾ 비교적 어려운 과목인 한문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화면 녹화 방식을 택하면서 ‘네이버’의 한자 사전 활용 방법,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의 한자 사전 활용 방법, ‘한국고전종합DB’와 같은 한문고전 관련 누리집, 학생의 과제 예시 등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었다.

필자는 기존 대면 수업 때도 교수자의 강의 중심으로 한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한문을 두려워하는 학생

12) 교양 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대해 연구한 이보경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때 “교수자는 도입부 영상에 버스트 샷(bust shot)으로 등장하여 필요한 설명과 안내를 하였고, 그 외 영상들은 해당 화면에 목소리를 녹음하여 제작하였다.”고 하였다.(이보경,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4집(4),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p.102)

13) 위의 논문, p.106.

들이 많은 것은 비대면 수업 상황이든 대면 수업 상황이든 같기 때문이었다. 다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강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였다.

2. 활동 자료로 상호 작용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단점은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비대면 수업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동영상 강의의 경우 학생들이 재성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여도 교수자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매주 활동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활동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제’와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매주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간단한 활동 자료를 작성한다고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 활동 자료 작성 시간만큼 동영상 강의 시간을 줄이고, 수업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하여 부담을 줄였다.

필자는 2020학년도 1학기 교양 한문 수업 중 한자,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1~2주차에는 몇 가지 질문을 적은 활동 자료 양식을 제공하고, 답을 양식 파일에 바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한문 번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3주차부터는 PDF로 올린 양식을 출력하여 답을 작성하고 촬영한 후 PDF나 JPG 파일로 탑재하게 하였다. 강의 자료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친구 파일에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는 문제를 없애고,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한문을 조금이라고 익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수업에 활용했던 활동 자료 양식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는 11주차 활동 자료 후반부 예시이다. 해당 수업의 과제인 『사자성어 200선 쓰기 교재』에 있는 사자성어를 한 주에 10개씩 익힐 수 있도록, 활동 자료 마지막 10문제는 항상 사자성어에 대한 것을 제시하였다. 과제는 14주차에 제출하지만 활동 자료를 작성하며 매주 사자성어를 쓸 수 있게 하였다. 유형은 한글로 사자성어 전체를 쓰는 것과 한자로 사자성어 빈 칸 두 개를 쓰는 것으로 나누어, 일상에서 쓰는 사자성어도 익히고 한자도 직접 써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제출한 활동 자료는 바로 확인하여 다음 주차 동영상 강의 첫 부분에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하였다. 답을 잘못 쓴 예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한자를 잘못 쓴 경우에는 에버렛의 필기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쓰면서 설명을 하였다. 위에 예로든 11주차 활동 자료의 경우 1번의 세 번째 한자 ‘유(遺)’의 음을 ‘웅’으로 쓴 경우, 2번의 뒤에서 세 번째 한자 ‘칭(稱)’의 음을 ‘칭’으로 쓴 경우가 있었고, 6번 ‘수(壽)’의 뜻과 음을 ‘목숨 숙’으로 쓴 경우가 있었다. 번역도 한 구절을 누락한 경우가 있고, 11번의 경우 ‘이십전심’을 ‘이십전심’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은 활동 자료 작성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보게 되고, 교수자는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해도 틀리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활동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또 토요일까지 제출한 활동 자료를 월요일에 탑재하는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었다. 수업평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활동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주 숙제도 있어서 부지런히 한문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학생F)

동영상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흥미로웠습니다.(학생G)

사실 그동안 한문에 흥미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한자들도 몰랐는데 교수님 덕분에 한문을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꾸준히 질 높은 강의를 올려주시고 특히 활동 자료 피드백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학생H)

활동 자료는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강의 자료와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의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틀린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며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알려 줄 수 있었다. 필자는 활동 자료 틀린 문제당 0.5점씩 ‘수업 참여도’ 점수에서 감점하였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별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활동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은 대면 수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집중하여 보게 하는 데에 기여를 하였으며,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과 이를 매개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3. 평가에 한자 쓰기 활용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평가였다. 2020학년도 1학기에 수업을 했던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 상황이라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A이상 50%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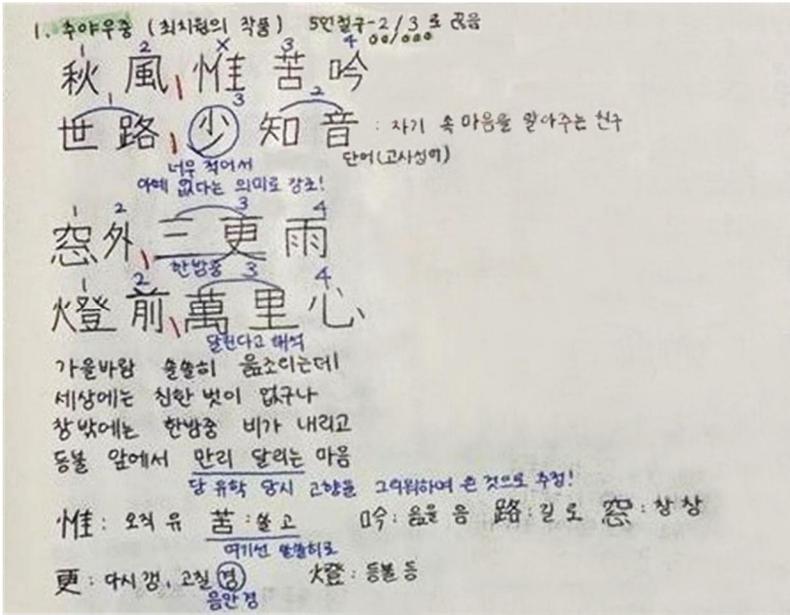
대면 수업일 때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A이상 30% 이내’, ‘AB 70%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 때는 ‘A이상 50% 이내’로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상위 50%와 하위 50%를 점수로 구분해야 했다. 해당 학기에 필자는 교양 과목인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인 ‘한국한시감상’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에서는 자기소개서, 비평문, 칼럼, 제안서 등 4차례의 글쓰기를 하였고, ‘한국한시감상’에서는 매 주마다 간단한 감상문을 쓰고, 핵심 과제로 한시 작품론을 제출하게 하였기 때문에, 과제물로도 변별력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하지만 한자를 익히고 번역을 하는 수업을 하고 시험을 중요시했던 교양 한문은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당시 필자가 수업한 학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에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치를 수 없게 하였다. 미 실시(수업 진행), 과제물 대체, 온라인 평가 등을 자율로 결정하게 하여 필자는 과제물 대체를 택하였다. 과제는 3~7주차에 배운 것을 노트에 정리한 후 사진을 찍어 탑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기말고사 때는 대면 시험도 가능하였으나 체온 체크, 손소독제 비치, 건강상태 확인,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했다. 수강인원이 84명이라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대면 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하였다. 또 당시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가 여러 학교에서 드러났던 상황이라¹⁴⁾,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같은 형

14) 뉴시스, 「서강대서도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 “시험 무효 처리”」, 2020. 6. 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2_0001045717&cID=10201&pID=10200 (검색일 : 2021. 1. 7); 서울신문, 「인하대, 서강대 이어 건국대도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파문」, 2020. 6. 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3500228&wlog_tag3=daum (검색일 : 2021. 1. 7); 국민일보, 「성균관대·시립대까지 <…> 대학가 온라인시험 부정행위에 몸살」, 2020. 6. 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6230&code=61121411&cp=du> (검색일 : 2021. 1. 7) 등.

식의 과제물 제출로 대체하였다.



〈그림 1〉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 예시

교양 한문 과제의 경우 이렇게 노트에 한자 및 배운 내용을 적게 하고, 이를 점수화하였다. 시험처럼 맞고 틀린 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제 제출 전후로 이를 구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었다. 필자는 과제물 안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채점한 후 10주차 강의 전에 점수를 탑재하였다. 그리고 10주차 동영상 강의 초반부에 학생 과제물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어느 부분에서 감점을 하였는지를 설명하였고, e-클래스의 쪽지 등으로 본인 감점 요인을 묻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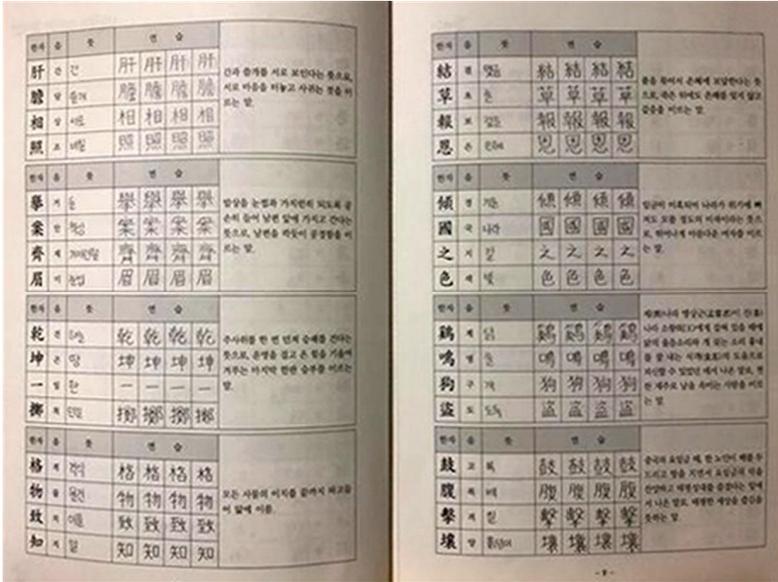
경우에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표 5〉 중간고사 과제물 관련 안내와 감점 설명

구분	내용
전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물 제출 기한 : 5월 9일(토) 낮 12시까지 ※ 24시간 후까지 제출은 가능하나 5점 감점함. - 과제물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드시 손 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할 것. ② 1개의 파일로 제출할 것. ※ 여러 장일 경우, 사진을 한글파일에 넣거나 스캔한 PDF를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 것. ③ 맨 첫 부분에 학과, 학번, 이름 반드시 쓸 것. ④ 노트 정리는 A4 용지, 일반 노트 등에 자유롭게 하되, '한문 원문, 번역 순서 표기, 번역, 새로 나온 한자 음과 뜻'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강의 자료 형식처럼 노트를 정리 하되, 동영상 강의 중 표기한 번역 순서 숫자를 추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됨. ※ '새로 나온 한자 음과 뜻'은 본인이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한자를 의미함. '사람 인, 있을 유'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를 정리할 필요 없음. ※ 3~7주차에 강의 자료 및 동영상 강의에서 번역한 문장만 노트 정리하면 됨. 교재에는 더 많은 문장이 있는데, 수업에서 번역하지 않은 문장은 정리할 필요 없음. ⑤ 색깔 있는 펜, 부호 등을 활용하여 중요한 부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함. ⑥ 사자성어는 200선 쓰기 과제가 별도로 있으니, 노트 정리에 넣지 말 것.
감점 설명	<p>제출한 경우 기본적으로 18점으로 주고 다음의 경우 감점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 제출은 5점 감점함. - 1개의 파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일로 제출한 경우 2점 감점함. - 맨 첫 부분에 학과, 학번, 이름 쓰지 않은 경우 0.5점 감점함. - '한문 원문, 번역 순서 표기, 번역, 새로 나온 한자 음과 뜻' 중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빠진 분량에 따라 1~4점 감점함. (예, 번역 순서를 한 번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4점 감점함) -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0.5점 감점함. <p>요구한 사항 외에 가독성 높게 잘 정리한 경우, 수업 중의 설명을 쓴 경우, 전체 한자 음을 쓴 경우 0.5~1점씩, 최대 2점까지 가점을 함.</p>

최종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교양 한문 수업의 핵심 과제인 사자성어 쓰기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대면

수업일 때는 제출한 경우 동일하게 10점 만점을 부여하였지만, 비대면 수업 때에는 학생들이 쓴 한자 하나하나를 확인하여 잘못 쓴 경우 감점을 하였다.



〈그림 2〉 자자성어 쓰기 과제 예시

자자성어 쓰기 과제 채점 후에는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바로 점수를 e-클래스에 탑재하고, 채점 기준도 별도로 안내하였다. 아울러 점수에 대해 문의한 학생에게는 감점 부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점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아래는 쓰기 과제 채점에 대해 e-클래스에 공지한 내용과 학생의 문의에 쪽지로 답변한 내용의 예시이다.

(표 6) 사자성어 쓰기 과제 관련 안내

구분	내용
전체 공지	<p>쓰기 교재는 한자 쓰기가 핵심인 것이라 한자가 틀린 경우 감점을 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가 틀리면 0.3점 감점함. (같은 줄 4글자 중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 같은 줄의 경우 2개 이상 틀려도 0.3점 감점) - 빈 칸의 경우 각 칸마다 0.3점 감점함. - 사진이 잘리거나 한 면 전체를 누락한 경우 한 줄 당 0.3점 감점함. (예, 한 면 전체를 누락하면 4.8점 감점함) - 기타 사진이 흐린 경우, 사진에 번호를 안 매긴 경우 등에는 0.5점 감점함. - 최고 6점까지 감점함.
개인 답변	<p>○○이는 사자성어 쓰기 교재를 쓸 때, 한자를 조금씩 틀리게 쓴 게 많은 편이에요. 한자를 잘못 쓰면 0.3점 감점인데,(공지사항에 감점 요인 설명 있음) 총 16개를 틀렸어요.</p> <p>8쪽 擲, 10쪽 孤, 17쪽 岐, 18쪽 瓢, 20쪽 狐, 28쪽 俱, 31쪽 莫, 36쪽 月, 37쪽 憂와 鬼, 40쪽 鳶, 41쪽 俱, 42쪽 移, 45쪽 家, 49쪽 琢, 57쪽 狐</p> <p>잘 보면 각 글자에 한 두 획을 더 쓰거나 덜 썼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쓰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틀리면 감점했고, 이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틀렸다고 했을 거예요. 또 사진 하나를 더 넣어 추가로 0.3점 감점되어, 전체 5.1점이 감점되었어요.</p>

해당 학교의 수업평가에는 의무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객관식 설문 문항 6가지가 있고, ‘수업과 관련하여 교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쓰는 주관식 1가지가 있다. 84명 중 36명이 주관식 문항에 답을 하였으며, “시험 또한 과제물 대체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학생I)라고 언급한 학생도 볼 수 있었다. 보통의 경우 주관식 답변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기 마련인데, 해당 학기 한문 분반의 경우 직접 만나지 못하여 아쉽다는 것 외에는 주관식 답변에 부정적인 평가가 없었다. 또 객관식 수업평가의 해당 분반 평균은 4.85로 대학교 전체 평균인 4.31보다 0.54가 높았다. 동

영상 강의, 활동 자료뿐만 아니라 한자 쓰기를 활용한 평가에도 학생들이 수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양 한문 평가 방식 중 학생들의 공부 여부를 판단하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시험이다. 84명이 쓴 200개의 사자 성어를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교수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큰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에 필자는 해당 학교의 교양 한문 수업에서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과제 10, 출석 10의 비율로 평가를 하여, 시험 비중이 높았으며 변별력은 시험 난이도 조절로 충분히 확보하였었다.¹⁵⁾ 그러나 2020학년도와 같이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대면 시험이 어려운 경우, 평가에 노트 정리, 쓰기 교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되었다.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처음 유행했을 때로, 한문 수업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수강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대면 시험을 치르기에는 위험이 따랐고, 그럼에도 변별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면 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큰 동기가 되고 변별력 확보에도 유리하지만,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평가에 한자 쓰기를 활용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 2020학년도 1학기 최초 강의 계획서 작성 시에는 기존과 같은 비율로 평가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과제 10, 수업 참여도 40, 출석 10으로 비율을 확정하였다. 이때 수업 참여도는 기본 점수로 40점을 주고, 활동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활동 자료의 문제를 틀린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e-클래스 공지사항,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였다.

III.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개선 방안

대학교 교양 한문 수업의 이상적인 방식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한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의문 나는 사항을 비교적 빠르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필자의 한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도 수업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과목 특성 상 대면 강의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강의를 진행될 수 있을 텐데, 한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은 것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교수님의 다른 수업을 수강하고 싶습니다.(학생J)

교수님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실제로 뵙고 수업을 받았다면 더욱 좋은 수업일텐데 아쉽네요.(학생K)

얼굴도 뵙지 못하고 한 학기 수업이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학생L)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직접 강의를 하는 교수자의 측면과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학교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의 개선 방안은 필자의 사례와 같이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한문 수업을 했을 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먼저 교수자의 측면에서는 소통을 위한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e-클래스의 쪽지·Q&A·댓글 등으로 주로 소통을 하였고, 개인 휴대폰과 이메일도 공개하여 편한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

다. 그리고 학생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답변 후, 질의 받은 사항을 동영상 강의 때 전체 학생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 매주 학생들의 활동 자료를 검사하고 틀린 부분들을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 객관식 수업평가 6개의 항목 중 ‘교수-학생 간 유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답변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7〉 한문 수업평가 결과 분석표

연번	설문문항 ¹⁶⁾	해당 분반 평균	대학교 전체 평균
1	강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4.91	4.39
2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4.90	4.32
3	참고자료 및 동영상 등 강의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4.86	4.31
4	교수-학생 간 유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4.73	4.25
5	성적평가기준에 따라 과제와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다.	4.82	4.30
6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85	4.29
소계		4.85	4.31

필자는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교양 한문을 비롯하여 ‘사고와표현’,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 ‘한국문학의이해’와 같은 교양 과목을 강의하였다. 이때 가장 질문이 많은 과목이 교양 한문이어서, 매번 수업 마지막 10분은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시험일 바로 전

16) 각 문항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었고, 해당 학기에는 모든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를 선택한 학생이 없었다.

수업시간에는 질의·응답만으로 수업 전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신이 선호하는 통로로 편하게 질문을 하라고 설명하였지만, 대면 수업 때보다 질문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수업 내용이 어려운 편인 교양 한문은 교수자에게 질의하고 대답을 듣는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하므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 활용이 있다.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2주에 1회 정도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성 질문, 채팅창 질문 등을 받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일부만 참여하는 소회의실을 이용한 개별적인 상담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같은 SNS를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상의 시간이 침범되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의 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 등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의 측면에서는 분반별 수강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 대면 수업의 경우 정규 수업 시간 안에 교수자의 강의, 학생들의 질문과 교수자의 대답,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이 거의 이루어진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질의·응답 등을 하게 되고, 즉각적인 대면 소통 때보다 글로 답변하는 방식은 더 시간을 요한다. 또한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에서 보듯이 활동 자료 검사, 쓰기 과제 검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런데 수강 인원이 많다 보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적어지게 된다.

또 교양 한문의 경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시험인데, 수강 인원이 많은 경우 필자의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사례처럼 대면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채 대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50명 이하로 한 분반 수강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수업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많고, 등록금이 대면 수업 때와 같다는 점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다는 기사를 꾸준히 접하게 된다.¹⁷⁾ 분반별 수강 인원이 줄어든다면 학생들과 소통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며,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 필자가 수업한 대학교의 글쓰기 관련 과목은 수강 인원을 3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글에 대한 피드백을 깊이 있게 해 줄 수가 있었고,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¹⁸⁾ 강의실 상황,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강 인원 제한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다.

본 개선 방안은 모든 비대면 한문 수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진행했던 필자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교수자에 따라 실시간 화상 강의, 토론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17) 연합뉴스, 「“비대면수업만 들었다구요”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020. 7.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77200004?input=1195m> (검색일 : 2021. 2. 16); 아시아경제, 「“등록금 전면 조정해야죠” 비대면 강의에 빨난 대학생들」, 2020. 9. 2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2514102061008> (검색일 : 2021. 2. 16); 뉴스1, 「대화가 원격수업 불만 속 1학기도 ‘비대면’ <...> 등록금 갈등 재현되나」, 2021. 2. 2, <https://www.news1.kr/articles/?4200199> (검색일 : 2021. 2. 16) 등.

18) 2020학년도 1학기 필자의 비대면 글쓰기 수업의 수업평가 평균은 4.87이었으며, ‘교수-학생 간 유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항목은 평균과 같은 4.87이었다.

필자와 같이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비대면 한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와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21년 2월 현재에도 거세어 2021학년도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확률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사례를 교수자들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2020학년도 1학기에 84명의 수강 인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양 한문 수업을 하였다. 해당 학기 교양 한문 수업은 동영상 강의와 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과제로 대체하였다. 구체적 수업 사례는 수업 방식, 상호 작용 방식, 평가 방식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영상을 통한 강의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문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초적인 한문 지식 전달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고,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의 동영상 강의를 반복하여 들으며, 학생 스스로 복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활동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을 하였다. 매주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간단한 활동 자료를 작성하게 하되, 동영상 강의를 보아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제 때 동영상 강의를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또 다음 주차 동영상 강의 초반부에 학생

들이 작성한 활동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었다.

셋째, 한자 쓰기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교양 한문 평가 방식 중 학생들의 공부 여부를 판단하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시험이다. 그러나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대면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트 정리, 쓰기 교재 등을 평가에 활용하여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대학교 교양 한문 수업의 이상적인 방식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교수자의 측면에서는 소통을 위한 창구를 확대하고, 학교의 측면에서는 분반별 수강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업 내용이 어려운 편인 교양 한문은 교수자에게 질의하고 대답을 듣는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하므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안전한 대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50명 이하로 한 분반 수강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필자가 선택한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아마도 많은 교수자들이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지금도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대면 수업의 역사가 짧은 현 상황에서 다양한 수업 방식이 공유되고, 각자 학교 상황과 교육철학에 맞는 비대면 수업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분반 교양 한문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와 연구가 쌓인다면,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양 한문 교수법 개발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비대면 수업에서 교양 한문 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대한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大學漢文』,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대한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사자성어 200선 쓰기 교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공민정, 「원격수업을 통한 중학교 한문과 학생 중심 수업 연구」, 『한자 한문교육』 제4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pp.31-50.
- 김영우,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방향 -仁濟大學校 教養 漢文을 中心으로」, 『한자 한문교육』 제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pp.311-334. UCI : G704-001732. 2011.1.27.010
- 백진우, 「학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방안 -원격 수업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 한문교육』 제4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pp.73-90.
- 이국진, 「대학교 한시 전공 온라인 원격수업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2020년 1학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 한문교육』 제4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pp.51-72.
- 이보경,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 교육연구』 제14집(4),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pp.97-112.
- 전희연, 「大學 教養漢文 教育의 變遷과 教授·學習方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 국민일보, 「성균관대·시립대까지 <...> 대학가 온라인시험 부정행위에 몸살」, 2020. 6. 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6230&code=61121411&cp=du> (검색일 : 2021. 1. 7)
- 뉴스1, 「대학가 원격수업 불만 속 1학기도 '비대면' <...> 등록금 갈등 재현되나」, 2021. 2. 2, <https://www.news1.kr/articles/?4200199> (검색일 : 2021. 2. 16)
- 뉴스시스, 「서강대에서도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 “시험 무효 처리”」, 2020. 6. 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2_0001045717&cID=10201&pID=10200 (검색일 : 2021. 1. 7)
- 서울신문, 「인하대, 서강대 이어 건국대도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파문」, 2020. 6. 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3500228&wlog_tag3

=daum (검색일 : 2021. 1. 7)

아시아경제, 「“등록금 전면 조정해야죠” 비대면 강의에 빨난 대학생들」, 2020. 9. 2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2514102061008> (검색일 : 2021. 2. 16)

연합뉴스, 「“비대면수업만 들었다구요”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020. 7.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77200004?input=1195m> (검색일 : 2021. 2.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2020.

8. 5, <http://www.studyhanja.or.kr/notice/view.php?id=657> (검색일 : 2021. 1. 7)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mprovements to Non Face-to-Face Chinese Character Classes as University Liberal Arts Subjects

Kim, Mi-sun

Due to the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mmonly referred to as COVID-19, has spread around the world, teachers who suddenly had to lead non face-to-face classes (untact classes) struggled to come up with effective class plans.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efforts for the search for an efficient non face-to-face Chinese character class as an essential university liberal arts subject, by sharing my case observations of non face-to-face Chinese character classes with teachers and by offering improvement plans.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2020, I conducted non face-to-face Chinese character class for a group of 84 students. Specific class ca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lecture-oriented classes were conducted through videos. Because of the nature of studying Chinese characters, it was necessary to allocate the necessary time to disseminate the basic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and to hear and review the video lectures repeatedly. Secondly, the teacher and students interacted with each other by using activity data. Students were asked to prepare simple activity materials to review what was learned every week, and they were given feedback on their assignments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week's video lecture. Thirdly, the writing of Chinese characters was utilized for evaluation. Since the face-to-face exam presented a difficult situation, we used arranged notes and writing textbooks for evaluation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While conducting non face-to-face Chinese character class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window for commun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acher, and to limit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chool.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feedback to students and to provide a safe face-to-face exam, the number of class members per class should be limited to 50 or less.

Key Words : Non face-to-face class, Chinese Character as a liberal arts subject, Class cases, Video lectures, Classroom interactions, Chinese character writing, Education improvement plans

김미선

소속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 paraoho@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2월 19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26일 게재 확정됨.